

목포시 도심 공용주차장 대폭 늘린다

공영주차장 51개소 3176면 운영
3개소 411면 주차타워 건립 추진
사유지 동네 주차장 조성도 확대

목포시가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주차난을 해소하고 목포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주차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주차 공간 확보에 힘을 쏟고 있다. 목포시에 따르면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51개소에 3176면을 조성했다. 주차 문제가 심각한 지역의 소규모 동네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시민 참여 임시 주차장 63개소 1001면을 조성·운영 중이다. 목포시는 올해도 주차난을 해소하고 안전사고



용당1동 주차타워 조감도.

를 예방하기 위해 용당동 빗물펌프장 인근 등 4개소에 95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했다.

또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6개소에 100면의 동네주차장을 확충하는 등 총 10개소 195면을 조성해 시민들의 주차 편의를 도모했다.

이와 함께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하당CGV영화관 옆 공영주차장과 용당1동 공영주차장 등 원·신도심 3개소에 411면 규모의 주차타워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국·공유지를 활용한 공영주차장 조성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통해 동네 임시주차장 조성사업도 확대해 주차 문제에 대한 시민 참여를 활성화해 나갈 방침이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도심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공영주차장을 지속해서 확충해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발전과 정주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목포=문병선 기자·서부취재본부장 moon@



'섬 숲 경관 복원 사업'을 완료한 완도 고금면 청용리 산 전경.

<완도군 제공>

완도 고금·약산 20ha '섬 숲 경관복원' 마무리

향토수종 5만여그루 심어

완도군은 고금면 청용리와 약산면 해동리 등 2개 지구 20ha의 산림에 향토수종을 심어 '섬 숲 경관 복원 사업'을 마무리했다고 23일 밝혔다.

섬 숲 경관 복원사업은 온난·습윤한 서남해안 지역에 적합한 난대·상록활엽수림을 복원에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완도군은 사업 대상지 2곳에 향토 수종인 구실잣밤나무, 동백나무, 황칠나무, 완도호랑가시나무 등 10여 종의 난대 상록활엽수 5만여 그루를 심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산림 생태계의 종 다양성 증가

로 병해충에 대한 저항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탄소흡수 실천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완도군은 지난 4월 산림청 주관 '2025년 대규모 산림 복원사업' 대상지로 선정되기도 했다. 앞으로 타당성 평가와 사전설계 심의를 거쳐 25ha 규모의 난대 상록활엽수림을 확대 조성할 계획이다.

박은재 완도군 산림휴양과장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산림의 식생 변화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다"며 "미래 세대에 건강한 산림을 물려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숲 경관 복원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목포상의 "상법 개정 신중·남해안 고속철도 조기 완공해야"

김원이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

목포상공회의소는 정현택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과 김원이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과 산업계가 당면한 현안 청취 및 해결방안을 위한 간담회를 지난 21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목포상의 정현택 회장은 현재 입법 논의되고 있는 상법 개정안 중 이사 총של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산업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정현택 회장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 될 경우 기업이 모험적인 투자를 하지 않아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성장에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비상장 기업들은 상장을 꺼리게 되고 M&A 등 모험적인 사결정을 하지 않음으로써 경영위축과 주주권 갈등을 초래하는 등 기업인의 정상적인 활동의 제한이 생길 수 있어 상법개정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또 영·호남간 인적물적 교류 확대 및 남해안권 신성장 발전을 위해서는 목포와 부산을 잇는 남해안고속철 운행이 조속히 이뤄져야함을 강조하며 미착공구간인 보성과 순천 구간을 우선 착공해 조



정현택 회장 등 목포상의 회장단과 김원이 국회의원이 지난 21일 현안 청취와 해결방안을 위한 간담회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목포상의 제공>

기 완공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요청했다.

김원이 국회의원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기업인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산자위 간사로서 기업인과 자주 소통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 간담회 자리에서 상호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격일 간담회를 갖기로 한 것으로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지역의 현안 해결 및 기업의 애로 청취와 정책에 반영하는 데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해남군 '김남주 추모 30주기' 국제학술심포지엄

28일 해남문화회관...3개국 참여

해남군평결순례문화관이 고(故) 김남주 시인의 추모 30주기를 맞아 한국과 몽골, 베트남 등 3개국이 참여하는 국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심포지엄은 오는 28일 오후1시 해남문화예술회관 다목적실에서 김남주 시인의 문학정신을 관통하는 소재인 '문학과 자유:그대는 타오르는 불길에 영혼을 던져보았는가'란 주제로 열린다.

국내외 다양한 작가, 평론가, 연구자들이 모여

심도있는 학술행사로 꾸러진 심포지엄의 전 과정은 팟캐스트문화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된다.

학술 심포지엄은 1부와 2부에 걸쳐 진행된다. 우리 시대의 지성이자 품격, 국립한국문학관 초대관장을 역임한 염무웅 평론가의 '오늘 다시 호출된 김남주'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김남주의 삶과 시(김형수) ▲타자의 공백으로 이행하기? 오월시의 현재성에 대한 소고(김영삼) ▲문학적 항거: 시대적 억압과 싸운 몽골 시인들(남바프레브) 발

표가 진행된다.

이어 2부에서는 ▲개혁 시기 베트남 문학에서 나타난 자유에 대한 열망(뎌티 마이난) ▲맹세의 언어(박수연) ▲김남주의 프란츠 파농 번역과 그의 초기 시 세계(방민호)를 다룬다.

올해 심포지엄은 해남 출신 대표 시인이자 한국 시문학의 중대한 문화자산인 김남주 시인의 추모 30주기를 맞아 세계적인 보편적인 가치인 '자유정신'에 대해 김남주 시를 국제적 관점으로 고찰하는 연구발표라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관심 있는 군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군 문화예술과 고산문학팀(061-530-5127-5132)로 하면 된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무안군, 외국인 근로자 124명 영농현장 투입

무안군이 지난 11일과 20일 입국한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124명(필리핀 34명, 라오스 90명)을 영농현장에 본격 투입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단기간에 노동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업종에 외국인인 90일 또는 5개월간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무안군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유치하기 위해 필리핀 실랑사·라오스 고용노동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올해 상반기 318명의 계절근로자가 입국했다.

지난 11일 입국한 필리핀 계절근로자 34명은 농

가에 배정해 영농작업에 투입했다.

또 20일 입국한 라오스 계절근로자 90명은 42농어가와 전남서남부채소농협에 공공형 계절근로자로 배정할 계획이다.

군은 입국한 계절근로자들과 고용주 농가를 대상으로 인권 보호, 준수사항 등을 교육했다.

장오중 무안군 농업정책과장은 "타국에서 온 계절근로자들이 무안군의 농촌일손 부족 해소에 큰 도움을 주는 만큼 근로기준과 인권보호를 철저히 준수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 모범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